

천태 四悉檀의 사상적 특징 고찰

—『법화현의』를 중심으로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1. 서론
2. 천태사실단의 구조와 특징
3. 천태사실단의 사상적 지향점과 논리적 특징
 - 1) 사상적 지향점
 - 2) 논리적 특징
4. 맺는말

천태 사실단의 구조와 사상적 특징에 대해 『법화현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천태는 十重으로 사실단을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지도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단의 내용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천태가 생각하는 사실단의 핵심은 부처와 중생의 관계성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생의 근기와 성품, 欲樂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으며, 그것이 感應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천태는 사실단을 활용해 教觀兼修의 필요성과 圓融性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천태는 사실단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互具互融이나 四句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태가 활용하고 있는 사구논리는 매우 주체적이고 자의적이란 점에서 동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에 활동한 삼론사상가들의 변증적인 사구분별과 다르다.

주제어

四悉檀, 三觀, 四敎, 五時, 互具互融, 四句分別

I. 서론

본고는 천태지의 대사가 주장한 四悉檀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四悉檀이란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제일의실단을 지칭하며, 여기서 悉檀의 사전적 의미는 成就, 宗, 理 등으로 의역할 수 있다. 실단이란 말은 siddhanta란 말을 음역한 것이다. 이것은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네 가지 교법을 의미하며, 『대지도론』 중에서는 권제1, 권제15, 권제16, 권제96 등에 설해져 있다. 天台智가 영향을 받은 것도 『대지도론』이라 밝혀져 있다.

물론 중국불교사에서 4실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천태종만은 아니다. 지론종, 화엄종, 삼론종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각각 독자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¹⁾ 그것은 四悉檀을 활용

1) 「지나불교사상에 있어서 四悉檀義」(일본: 『印度學佛敎學研究』 제10권 제2호, 소화 37), pp. 118-119참조.

해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말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天台智□의 사상에 나타난四悉檀에 국한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천태는『마하지관』,『차제선문』등 그의 많은 저서 중에서四悉檀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유마경현소』와『법화현의』에四悉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천태의 고유사상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법화현의』를 중심으로 천태지의의四悉檀에 관한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천태의四悉檀에 관해 연구한 기존의 논문과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논지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태의四悉檀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1) 小野島護城의「四悉檀管見」(『傳道新誌』제14권 제10호, 제15권 1호, 1901, 1902)—간략한 개설적 소개

2) 川勝守의「天台四悉檀의 一側面」(奧田慈應先生喜壽記念『佛敎思想論集』, 平樂寺書店, 1976)—천태의 저서인『차제선문』을 중심으로 선관과 4실단의 관계를 연구

3) 川勝守의「四悉檀義와 敎相論—天台三大部 에 대해」(關口眞大편『佛敎의 實踐原理』, 산희방불서림, 1977)—교상과 4실단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연구

4) 十川昭「天台에 있어서 四悉檀에 대해」(『大谷大學大學院研究

紀要』 제14호, 1979,12)－4실단과 교판에 관한 연구

5) 藤井教公 「天台에 있어서 四悉檀의 意義」(『印度學佛敎學研究』 제47권제2호, 1999,3)－『대지도론』에 나오는 사실단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천태지의가 주장하는 사실단을 敎相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정리했으며, 천태지의가 사실단을 중시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

6) 平井俊榮 『法花文句의 成立에 關한 研究』 제2편 제4장, 春秋社, 1985)－『법화문구』의 4종석은 길장의 4종석을 계승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7) 奥野光賢 「天台敎學과 『法花論』－吉藏과의 比較에서－」(天台大師千四百年遠忌記念出版 『天台大師研究』, 天台學會, 1997)－천태대사와 길장이 설하는 사실단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둘째 대만

陳英善 『天台緣起實相論』(臺灣, 東初出版社, 民國84)에서 『법화현의』의 사실단을 중심으로 起敎는 四諦와 연계하고 起觀은 三觀과 결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셋째 한국

1) 이병욱 『천태사상연구』(서울: 경서원, 2000)－『유마경현소』의 교판론에서 4실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교판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상적 특징이나 지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이라 말할 수 있다.

2) 최일범 「주역선해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가산학보』, 가산 불교문화원, 2003)－필자는 대만 陳英善의 저서를 참고로 명대에 활동한 고승인 감산지옥의 『주역선해』에 천태의 사실단의 사상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현재까지 천태와 관련된 四悉檀에 관한 논문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教相과 관련된 논문은 이미 상당 수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사족을 첨가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말년의 저서로 알려진 『법화현의』를 중심으로 천태의 四悉檀에 관해 그 사상적 특징과 논리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천태 四悉檀의 구조와 특징

『법화현의』 권제일상의 七番共解, 第七會異는 四悉檀을 十重으로 풀이하고 있다. 釋名, 辨相, 釋成, 對諦, 起教觀, 說默, 用不用, 權實, 開顯, 通經이다. 전체적인 사상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釋名에서 천태는 선인들의 四悉檀에 대한 해석을 비판한다. 즉 先師들이 悉檀을 宗, 成, 墨, 印, 實, 成就, 究竟 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누구의 번역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宗이나 印 등으로 四悉檀을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비판한다. 따라서 “남악대시는 대열반이란 용어와 마찬가지로 四悉檀은 범어와 한어를 겸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悉이란 漢語이고 檀은 梵語이다.悉이란 말은 두루한다는 의미이고, 檀은 배푼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

다.’ 부처는 네 가지 법으로 중생에게 끌고루 널리 베풀기 때문에 실단이라 말한다.”²⁾ 그렇지만 이상에서 인용된 四悉檀에 대한 천태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다. 오히려 그가 비판한 先師들의 해석이 원의에 보다 가깝다. 다만 해석상의 오류는 있지만 중생과 부처의 관계 속에서 그의 실천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辨相이란 四悉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세계실단이란 부처가 중생의 소원에 따라 짐짓 세계의 모든 존재를 밝히고, 중생의 소원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다. 각각위인실단이란 중생 개개인의 근기에 상응하여 법을 설하며, 집착을 깨뜨려 바른 믿음을 생기게 하고, 선근이 생기도록 선법을 베푸는 것이다. 대치실단이란 중생의 번뇌나 악업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악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탐욕이 많으면 부정관을 닦고, 진애가 많으면 자비스러운 마음을 닦으며, 우치가 많으면 因緣觀을 닦는 것과 같은 것이니 악한 병에 대치하여 진리의 약을 중생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제일의실단은 중생들에게 제일의의 진리를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可說과 不可說의 두 가지가 있다.³⁾ 四悉檀에 대한 설명이 『대지도론』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釋成이란 4실단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

2) □大正□□33, 686c. "悉檀天竺語. 一云此無□例. 如脩多羅多含. 一云□爲宗成墨印實成就究竟等莫知孰是. 地持菩提分品說. 一切行無常一切行苦. 一切法無我涅槃寂滅. 是名四優檀那. 此□爲印. 亦□爲宗. 印是楷定不可改易. 佛菩薩具此法復以傳教. 此就教釋印. 如經世智所說有無無二. 此法楷定以此傳授經. 過去寂□諸牟尼尊展轉相傳. 此就行釋印也經壇上踊出. 乃至出第一有最上. 衆共歸仰世間所無. 此釋宗義. 彼明文了義釋優檀那諸師何得用宗印. □四悉檀如此既謬. 餘□亦□信. 南岳師例大涅槃梵漢兼稱. 悉是此言檀是梵語. 悉之言遍. 檀□爲施. 佛以四法遍施衆生. 故言悉檀也."

3) 상동, 686c—687a. 인용문이 길어서 생략.

서는 四悉檀과 四隨⁴⁾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세계실단과 각각 위인실단은 설명하고, 대치실단과 제일의실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 ‘일체의 중생은 욕망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대지도론』과 ‘먼저 욕망이란 낚시를 도구로 중생을 불도로 인도한다’는 『유마경』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세계실단이 중생의 樂과 欲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말한다. 隨便宜란 수행자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을 말하며, 각각위인실단은 교화의 주체가 중생의 근기를 고찰하고, 이들에 대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⁵⁾ 『대지도론』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한다.

對諦란 四悉檀을 네 가지의 四諦⁶⁾에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생멸사제는 세계실단에, 무생사제는 위인실단에, 무량사제는 대치실단에, 무작사제는 제일의실단에 대비하는 것이다.⁷⁾

起教觀이란 四悉檀에 의거하여 三觀과 四教과 五時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幽微한 理致는 觀이 아니면 밝힐 수 없다. 이치에

4) 四隨란 隨樂欲, 隨便宜, 隨對治, 隨第一義이다. 천태는 이 사수가 禪經에 나오는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전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선비요법경』, 『좌선삼매경』, 『선법요해』, 『달마다라선경』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들의 경전에도 이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多田孝正, 『法花玄義』(일본: 大藏出版株, 소화60), p. 264 참조.

5) 상동, 687c.

6) 생멸사제, 무생사제, 무량사제, 무작사제는 『열반경』 성행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천태는 이것을 四悉檀에 대비하여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장교, 통교, 별교, 원교와도 대비하여 설명한다.

7) 상동, 687c. "四對諦者. 直對一番四諦如前說. 廣對四種四諦者. 四種四諦一一以四悉檀對之. 復總對者. 生滅四諦對世界. 無生四諦對爲人. 無量四諦對對治. 無作四諦對第一義."

契合하는 觀은 실단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다”⁸⁾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태가 주장하는 教觀並修 사상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먼저 起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태는 삼관 중에서 從假入空觀이 四悉檀에 의거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중가입공관을 닦을 때에 먼저 바른 인연의 법을 관조한다. 이 법은 내외와 친소가 隔別하므로 만일 殷勤하게 樂欲하지 않으면 닦는 것을 완성할 수 없다. 반드시 밤을 새워 정근하고 기빠하여 실증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실단이며 처음 관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假를 관조하여 공에 들어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便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일 觀을 닦아야한다면 擇, 精進, 喜라는 三覺分을 활용하여 그것을 일으킨다. 만일 止를 닦아야 한다면 除, 捨, 定이라는 三覺分을 활용하여 그것을 일으킨다. 염각분은 두 곳에 모두 통하며, 이것은 편의에 따라 善心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浮沈하는 病이 있으면 반드시 대치실단을 활용해야만 한다. 만일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念, 擇, 進, 喜로써 그것을 다스린다. 만일 마음이 뜰 때는 念, 捨, 除, 定으로 그것을 다스린다. 만일 위인실단을 잘 활용하면 선근이 두터워진다. 만일 대치실단을 잘 활용하면 번뇌가 얇아진다. 七覺分 중에서 편리하게 하나의 각분에 의지하면 망념을 끊어 事益을 상실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각분에 의지해 研修하면 진정한 慧明을 펼쳐서 제일의를 볼 수 있다. 이

8) □大正□□33, 687c. "幽微之理非觀不明. 契理之觀非悉檀不起."

것이 四悉檀을 활용해 중가입공관을 일으키고 일체지를 성취하며 慧眼을 발하는 것이다.”⁹⁾

라고 말한다. 이상 인용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바른 인연법을 관하여 세계실단에 의거해 初觀을 일으킨다. 둘째 가를 관조해 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인실단의 편의에 따라야 하는데, 觀을 닦고자 하면 칠각분 중에서 택법, 정진, 회의 三覺分을 활용하고 止를 닦고자 하면 제, 사, 정의 三覺分을 활용하여 공관을 일으킨다. 念각분은 두 곳에 모두 통한다. 셋째 마음에 부침하는 병이 있으면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대치실단의 방법에 의거하여 칠각분을 활용한다. 그러면 번뇌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칠각분 중에서 하나의 각분에만 의지해 일의 이해관계를 잊어버리고 이치에 들어가려고 한다. 각분에 의지해 觀을 닦으면 무루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從空入假이나 中道第一義觀, 一心三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제하고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 있다. “만일 중공입가관에서 사실단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도종지와 법안을 취득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일 중도제일의관을 닦는데서 사실단을 교묘하게 활용해 일체종지와 불안을 취득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일 일심삼관에서 교묘하게 활용하면 역시 이와 같다.”¹⁰⁾고 말한다. 결국 중가입공관에서 중공입가

9) 상동, 687c - 688a. “脩從假入空觀時, 先觀正因緣法, 此法內外親疏隔別, 若不殷勤樂欲, 則所習不成, 必須曉夜精勤欣悅無□, 此卽世界悉檀起初觀也, 若欲觀假入空, 須識爲人便宜, 若宜修觀, 卽用擇精進喜三覺分起之, 若宜修止, 則用除捨定三覺分起之, 念通兩處是爲隨宜善心則發, 若有沈浮之病須用對治悉檀, 若心沈時念擇進喜治之, 若心浮時念捨除定治之, 若善用爲人善根則厚, 若善用對治煩惱則薄, 於七覺中隨依一覺□然如失, 卽依此覺分研修, 能發眞明見第一義, 是爲用四悉檀起從假入空觀, 成一切智發慧眼也.”

10) □大正□□33, 688a. “若從空入假觀, 巧用四悉檀, 取道種智法眼亦如是, 若修中道第

관으로, 그리고 중도제일의관으로 진행되는 修證이나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의 취득, 혜안, 법안, 불안의 發得 등은 모두 사실단의 작용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일심으로 삼관을 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것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三觀	三智	三眼
從假入空觀	一切智	慧眼
從空入假觀	道種智	法眼
中道第一義觀	一切種智	佛眼

다음으로 起教에 대한 사실단의 적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치에 집약하여 修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不可說한 것과 인연방편이나 비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이것을 천태는 제일의실단을 설명하면서 수용하고 있다. 즉 不可說한 理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사실단의 작용에 의해 불가설한 것을 설하거나 혹은 침묵을 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경우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어떠한 법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천태는 “대론에선 ‘부처는 항상 □然함을 좋아하고 설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淨名은 입을 닫았으며, 이 경전에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경에서는 생생불가설 내지 불생불생불가설

—義觀, 巧用四悉檀, 取一切種智佛眼亦如是, 若一心三觀巧用亦如是.”

을 설했다.”¹¹⁾라고 전제한다. 『대지도론』, 『유마경』, 『법화경』, 『열반경』의 내용을 인용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열반경』의 덕왕품에 나오는 여섯 가지 不可說¹²⁾의 내용은 천태의 사상을 표현하는 논리적 도구로 등장하게 된다. 즉 천태는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선택하여 四教에 배당하고, 모든 존재는 본래 不可說하고 不可思議하지만 사실단의 인연에 의해 설하면 藏通別圓의 四教의 구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한다. 첫째 生生不可說이다. 모든 존재를 발생시키는 인연과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존재는 진실로 존재(實有)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生生이며, 이것을 장교에 배당한다. 둘째 生不生不可說이다. 인연이나 모든 존재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그 當體는 공이라 보는 것이 生不生이며, 이것을 통교에 배당한다. 셋째 不生生不可說이다. 진실로 不生하는 유일한 理法에서 十界의 차별하는 모든 事象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성과 열반의 깊은 경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별교에 배당한다. 넷째 不生不生不可說이다. 진실로 不生하는 理法이나 십계의 차별상도 互具하고 互融하여 不一不二이기 때문에 불생불생이며, 원교에 배당한다. 『유마경현소』에서는 이것을 『열반경』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不可說相이며, 이것이 유마거사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라 말한다.¹³⁾

여기서 이상의 내용을 『중론』에 나오는 사구계와 연계하여 도시

11) 상동, 688a. "佛常樂□然不樂說法. 淨名亦論杜口. 此經云. 不可以言宣. 大經云. 生生不可說. 乃至不生不生不可說."

12) □大正□□12, 733c.

13) 多田孝正, 『法花玄義』(일본, 大藏出版株, 소화60), p. 243과 이병욱, 『천태사상연구』(서울: 경서원, 2002), pp. 198-201 참조.

하면 다음과 같다.¹⁴⁾

열반경의 四諦	生滅四諦	無生四諦	無量四諦	無作四諦
四不可說	생생불가설	생불생불가설	불생생불가설	불생불생불가설
중론 사구계	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名爲假名	亦是中道義
사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어서 천태는 경전을 설하는 경우에도 청중인 중생의 근기를 고려해 설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즉

“열 가지의 인연이란 無明에서 有에 이르기까지 이 열 가지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가지의 根性을 구비하고 여래가 설하는 네 가지 법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열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진 중생이 下品の 樂欲을 지니면 능히 界内の 事善을 발생할 수 있다. 拙度하여 미혹을 깨뜨리고 법을 分析하여 공에 들어간다. 이러한 인연을 갖춘 자에게는 여래가 생멸사제의 법륜을 굴러 삼장의 가르침을 일으킨다. 만일 열 가지의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중생은 中品の 樂欲으로 능히 界内の 理善을 발생할 수 있다. 巧度으로 미혹을 깨뜨리고 법을 體達하여 공에 들어간다. 이러한 인연을 갖춘 자에게는 여래가 무생사제의 법륜을 굴러 通教를 일으킨다. 만일 열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진 중생이 上品의 낙욕을 지니면 능히 界外의 事善을 일으킬 수 있다. 歷別하여 미혹을 타파하고 순서대로 中에 들어간다. 이러한 인연을 갖춘 자에게는 여래가 무량사제의 법륜을 굴러 別教를 일으킨다. 만일 열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진 중생이 上上

14) 多田孝正, 앞의책, p. 276 도표 참조.

품의 낙욕을 지니면 능히 界外의 理善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의 미혹을 타파하는 것이 일체의 미혹을 깨뜨리는 것이니 圓頓으로 中에 들어간다. 이런 인연을 갖춘 자에게는 여래가 무작사제의 법륜을 굴러 圓敎를 일으킨다.”¹⁵⁾

이상 인용문의 내용은 장통별원에 따라 중생의 근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설법의 내용과 대응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근성 세계실단	하품낙욕	중품낙욕	상품낙욕	사상품낙욕
위인실단	生界內事善	生界內理善	生界外事善	生界外理善
대치실단	拙度破惑	巧度破惑	歷別破惑	一破惑一切破惑
제일의실단	析法入空	體法入空	次第入中	圓頓入中
사제	生滅四諦	無生四諦	無量四諦	無作四諦
사교	三藏敎	通敎	別敎	圓敎

이상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四敎가 사실단을 매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즉 四敎로 분류한 이유가 네 가지 근성의 樂欲인 세계실단에 있으며, 근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가장 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천태의 관점은 12

15) □大正□□33, 688ab. "十因緣者，從無明至有此十成於衆生具四根性，能感如來說四種法若十因緣所成衆生，有下品樂欲，能生界內事善拙度，破惑析法入空，具此因緣者，如來則轉生滅四諦法輪，起三藏敎也，若十因緣法所成衆生，有中品樂欲，能生界內理善巧度，破惑體法入空，具此因緣者，如來則轉無生四諦法輪，起通敎也，若十因緣所成衆生，有上品樂欲，能生界外事善歷別破惑次第入中，具此因緣者，如來則轉無量四諦法輪，起別敎也，若十因緣所成衆生，有上上品樂欲，能生界外理善，一破惑一切破惑圓頓入中，具此因緣者，如來則轉無作四諦法輪，起圓敎也。"

16) 關口眞大, 『佛敎의 實踐原理』(일본: 山喜房佛書林, 소화52), p. 307 도표 재인용.

부경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세계실단이니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 12부경전을 만들었다. 혹은 12종의 說을 만들어 중생의 선을 생기게 한다.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중생의 惡을 깨뜨린다.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중생들이 깨닫게 한다. 이것을 사실단이 삼장교의 12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 말한다.”¹⁷⁾ 거나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卽空하여 선을 발생시키며,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즉공하여 미혹을 깨뜨리고,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즉공하여 이치를 깨닫게 한다. 이것이 사실단으로 통교의 12부경을 일으키는 것이다.”¹⁸⁾, “이와같은 12종의 說은 그 樂欲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혹은 그 善을 일으키고 혹은 그 악을 파괴하며, 혹은 悟入하게 한다. 이것을 사실단이 별교의 12부경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다.”¹⁹⁾ 거나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妙善을 생기게 하며,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문득 미혹을 깨뜨리고, 혹은 12종의 설을 만들어 문득 이치를 깨닫는다. 이것이 사실단으로 원교의 12부경을 일으키는 것이다.”²⁰⁾ 라고 말한다. 즉 장교에서는 이것이 세계실단이라 말하고 있으며, 통교에서는 “이것이 樂欲에 隨伴하는 세계실단”이라 말한다. 별교에서는 “이러한 12종의 說이 그 樂欲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며, 원교에서는 “이것이 樂欲에 赴하는 세계실단”이라 말한다. 세계

17) □大正□□33, 688b. "此是世界悉檀. 爲悅衆生故. 起十二部經. 或作十二種說生衆生善或作十二種說破衆生惡. 或作十二種說令衆生悟. 是名四悉檀起三藏十二部經."

18) 상동, 688c. "或作十二種說卽空生善. 或作十二種說卽空破惡. 或作十二種說卽空令悟理. 是爲四悉檀起通教十二部經也."

19) 상동, 688c. "如是等十二種說悅其樂欲. 或生其善或破其惡. 或令悟入. 是名四悉檀起別教十二部經."

20) 상동, 688c. "或作十二種說生妙善. 或作十二種說頓破惡. 或作十二種說頓會理. 是爲四悉檀起圓教十二部經."

실단의 根性的 차이 때문에 사실단에 의거한 四敎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단과 五時說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다시 별교와 원교의 두 가지 사실단을 활용하여 12부경을 설하는 것은 화엄교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만 한번의 사실단을 활용하여 12부경을 설하는 것은 삼장교를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네 번의 사실단을 활용하여 12부경을 설한다면 방등교를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세 번의 사실단을 활용하여 12부경을 설한다면 반야교를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단 한번의 사실단을 활용하여 12부경을 설한다면 법화교를 일으키는 것이다. 대론에서 ‘사실단은 12부경을 섭수한다’고 말했는데 그 뜻이 이러한 것이다.”²¹⁾

그리고 이상 인용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엄교	별교와 원교의 사실단
삼장교	장교의 사실단
방등교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사실단
반야교	통교, 별교, 원교의 사실단
법화교	원교의 사실단

이상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화교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

21) □大正□□33, 688c - 689a, "復次用別圓兩種四悉檀, 說十二部經者, 是起華嚴敎也, 但用一番四悉檀說十二部經者, 是起三藏敎也, 若用四番四悉檀說十二部經者, 是起方等敎也, 若用三番四悉檀說十二部經者, 是起般若敎也, 若但用一番四悉檀說十二部經者是起法華敎也, 大論云, 四悉檀攝十二部經其義如是."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화현의』에서는 『유마경현소』와 달리 돈교, 점교, 부정교, 비밀교의 四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²²⁾ 기타 각종의 논서에 대한 천태의 입장은 역시 사실단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다.

사실단에 대한 十重 해석 중에서 여섯 번째는 說□이다. 천태는 먼저 『사익경』을 인용하여 비구들이 두 가지 일을 항상 실천해야 하는데 聖說法과 聖□然이라 말한다. 그리고 성스러운 설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므로 聖□然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은 네 가지의 사제가 모두 삼승의 성인들이 깨닫게 되는 법이며, 하근기의 범부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不可說이 聖□然이라 정의한다.²³⁾ 이어서 5시교판과 사종사제설을 결합하여 不可說의 聖□然을 해석한다. 화엄은 무량과 무작사제, 삼장교는 생멸사제, 방등교는 생멸, 무생, 무량, 무작사제, 반야교는 무생, 무작, 무량사제, 법화교는 무작사제의 불가설을 설하기 때문에 聖□然이라 한다. 그리고 “□然是 부처와 같은 것이다. 가부좌하고 正念하여 身心이 不動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의 자취를 깨닫게 하므로 □然이라 하며, 모두 사실단이 이러한 □然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²⁴⁾고 정의한다.

22) 『유마경현소』의 화의사교에 대한 내용은 이병욱, 앞의책, pp. 206-211에 걸쳐 다루고 있다.

23) □大正□□33, 689a. "起聖說聖□者, 思益云, 佛告諸比丘汝等當行二事, 若聖說法若聖□然, 聖說如上辨, 聖□然者, 夫四種四諦□是三乘聖人所證之法, 非下凡所知故不可說, 假令說之如爲盲人設燭, 何益無目者乎, 故不可說名聖□然."

24) 상동, 689b. "是故□然如佛, 結跏正念身心不動, 令無量人得悟道跡, 是故□然皆是四悉檀, 起此□然利益一切, 何謂無益."

用不用은 사실단의 활용여부에 대해 범부, 삼장교의 二乘, 벽지불, 삼장교의 보살, 통교, 별교, 원교의 입장에서 각각 설명하는 것이다. 천태는 用과 不用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저 사실단은 여래만이 지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묘한 能用을 具得할 수 있다. 下地 이하는 得用이 다르다. 대개 4구가 있는데 不得不用, 得而不用, 不得而用, 亦得亦用”²⁵⁾이라 하고 있는데서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여덟 번째 權實은 化法四教와 五時를 사실단에 의거해 방편문인가 진실문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천태는 四教 중에서 장교, 통교, 별교는 방편문이고 원교만이 진실문이라 말한다. 五時에 대해서도 乳教(화엄)는 四權(별교의 사실단)과 四實(원교의 사실단)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酪教(鹿苑時)는 단지 四權(장교의 사실단) 뿐이라 말한다. 生蘇教(방등시)에는 12權(장통별교의 사실단)과 四實(원교의 사실단)이 있으며, 熟蘇教(반야시)에는 8權(통별교의 사실단)이 있다고 한다. 『열반경』의 부류에는 12권(장통별교의 사실단)과 四實(원교의 사실단)이 있으며, 『법화경』의 부류에는 원교의 사실단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實이라 간주한다.²⁶⁾

十重釋 중에서 아홉째는 開顯이다. 이것은 開權顯實을 줄인 말이다. 『법화현의』에선 “일체의 모든 존재는 미묘하지 않은 것이 없다. 一香 一色이 중도 아닌 것이 없다. 중생들의 마음이 미묘함과 떨어져 있을 뿐이다. 위대한 자비는 중생에게 순응하기에 세상과 다투지

25) 상동, 689c. “夫四悉檀獨有如來，究竟具得微妙能用，下地已去得用不同，凡有四句，不得不用，得而不用不得而用，亦得亦用.”

26) 상동, 690a. “若用此權實約五味教者，乳教則有四權四實，酪教但有四權，生蘇則有十二權四實，熟蘇則有八權四實，涅槃十二權四實，法華四種俱實(云云).”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방편과 진실이 동일하지 않음을 밝힌다.”²⁷⁾고 정의한다. 중생과 부처의 관계 속에서 중생들의 근기에 순응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知見을 열어 구경의 實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 말한다.

마지막으로 通經은 사실단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법화경』 안에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문답이다. 천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장은 인용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방편품과 비유품, 여래수량문의 구절을 인용하여 사실단과 결부시키고 있다.²⁸⁾ 이러한 해석방식은 매우 중국적인 것이며, 사안에 따라 그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觀心釋의 일종이지만 본질을 존중하고 형식을 경시하는 破相의 사상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通經이란 제목을 붙이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就事通經의 줄임 말이라 볼 수 있다.

3. 천태 四悉檀의 사상적 지향점과 논리적 특징

27) 상동, 690b, "一切諸法莫不皆妙, 一色一香無非中道, 衆生情隔於妙耳, 大悲順物不與世諍, 是故明諸權實不同."

28) 상동, 690c - 691a, "此經何文明四悉檀耶, 答文中處處皆有此意, 不能具引, 今略引跡本兩文, 方便品云, 知衆生諸行深心之所念, 過去所習業欲性精進力, 及諸根利鈍, 以種種因緣譬喻亦言辭, 隨應方便說, 此豈非是四悉檀之語耶, 欲者即是樂欲, 世界悉檀也, 性者是智慧性, 爲人悉檀也, 精進力即是破惡, 對治悉檀也, 諸根利鈍即是兩人得悟不同, 即是第一義悉檀也, 又壽量品云, 如來明見無有錯謬, 以諸衆生有種種性種種欲種種行種種憶想分別故, 欲令生諸善根, 以若干因緣譬喻言辭種種說法, 所作佛事未曾暫廢, 種種性者即是爲人, 種種欲者即是世界, 種種行者即是對治, 種種憶想分別, 即是推理轉邪憶想得見第一義, 兩處明文四義具足, 而皆言爲衆生說法, 豈非四悉檀設教之明證也."

29) 印順, 『中國禪宗史』(중국: 江西人民出版社, 1999), pp. 136-140의 指事問義와 就事通經 항목 참조.

이상에서 『법화현의』에 나타난 四悉檀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천태는 무슨 이유로 이상과 같이 복잡한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천태가 지향했던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논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상적 지향점

천태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四教나 일체의 經教, 教觀에 대해 사실단에 의거해 설명하고 있다. 사실단이 이들의 사상적 토대이며, 사실단에 의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천태는 이러한 해석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사실단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는 『대지도론』은 진제와 속제라는 二諦說을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실단에 의거해 불법을 해석하고 어떤 통일성과 질서를 찾고자 하며, 더 나아가 諸法の 實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³⁰⁾ 바로 불교의 경전 안에 내재하는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가르침들, 예컨대 무아설과 法體恒有說 혹은 我空과 法空이 허무주의로 誤認될 수 있는 여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설에 대해 세간적 관점(세계실단), 개별적 관점(위인실단), 치료적 관점(대치실단), 절대적 관점(제일의실단)이 있다는

30) 서성원, 「『대지도론』의 사실단」, 『인도철학』 제11집 제2호(한국: 2002, 인도철학회), pp. 2-3 참조.

점을 설명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정한 질서나 통일성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은 속제에, 제일의실단은 勝義諦(혹은 진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지도론』에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는 승의적 관점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전제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네 가지의 관점 안에 부처님의 모든 교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각각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³¹⁾

그러나 천태는 이상과 같은 『대지도론』의 의도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다. 부처의 본질적인 지혜와 부처가 중생을 교화할 때의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부처와 중생이란 대칭적 관계 속에서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합일점을 찾을까 하는 주체적이고 종교적인 실천성에 그 무게의 중심을 두었던 것이다. 다양한 근기를 소유하고 있는 중생들을 효과적으로 교화하기 위한 방법 내지 수단이 바로 사실단이라 보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지도론』에서 추구했던 교학의 통일성 내지 질서의 확립이라는 근본 목적과는 이해의 방식이 달랐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천태는 사실단에 대한 語義를 “悉이란 漢語이고 檀은 梵語이다.悉이란 말은 두루한다는 의미이고, 檀은 베푸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부처는 네 가지 법으로 중생에게 골고루 널리 베풀기 때문에 실단이라 말한다.”³²⁾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지

31) 서성원, 전계논문, p. 4 참조.

32) □大正□□33, 686c. "南岳師例大涅槃梵漢兼稱。悉是此言檀是梵語。悉之言遍。檀□爲施。佛以四法遍施衆生。故言悉檀也."

도론』에서 말하는 사실단의 근본 語義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보다는 ‘사실단의 법으로 중생에게 널리 베푼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는 음역한 것을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모두 베푼다’고 풀이하고 있다. 가르침을 베풀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 즉 제일의의 세계를 체득하게 만들고자 하는 점에 주력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단은 부처님만이 지닐 수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화 수단’이 아닐 수 없다. “대저 사실단은 여래만이 지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묘한 能用을 具得할 수 있다.”³³⁾고 用不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釋成에서 ‘일체의 중생은 욕망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대지도론』과 ‘우선 욕망이란 낚시를 도구로 중생을 불도로 인도한다.’는 『유마경』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중생들이 隨樂欲, 隨便宜, 隨對治, 隨第一義의 四隨에 좌우된다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³⁴⁾

중요한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와 어떠한 형태로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教觀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教觀은 사실단에 의지해야만 한다. 이것을 천태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教든 觀이든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나타내 보이는 규범이나 방편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즉 『법화현의』 권6상에 설해진 感應妙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관계를 사실단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고 있다. 즉 機(중생)와 應

33) 상동, 689c. "夫四悉檀獨有如來, 究竟具得微妙能用."

34) 상동, 687c.

(부처)의 상관성이 機의 微와 應의 赴, 機의 關과 應의 對, 機의 宜와 應의 應이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취급되고 있으며,³⁵⁾ 이것이 차례대로 세계실단, 대치실단, 위인실단, 제일의실단에 대응하고 있다. 즉 부처와 중생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感應의 상관성이 사실단이라는 범주로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³⁶⁾ 教와 觀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觀을 설명하면서 ‘幽微한 理致는 觀에 의거해야 하고, 觀은 사실단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이나 ‘부처는 항상 □然을 즐기고, 淨名은 입을 막았지만 이러한 □然을 일으켜 중생을 이롭게 한다.’³⁷⁾고 말하는 점이 결국 부처의 입장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논리적 특징 - 互具互融과 4句論理

35) □大正□□33, 746c-747a. "機有三義. 一者機是微義. 故易云. 機者動之微. 吉之先現. 又阿含云. 衆生有善法之機. 聖人來應也. 衆生有將生之善. 此善微微將動. 而得爲機. 若將生善爲機. 此結爲促. 今明可生之善. 此語則寬. 如弩有可發之機. 故射者發之. 發之則箭動. 不發則不前. 衆生有可生之善. 故聖應則善生. 不應則不生. 故言機者微也. 二者古注楞伽經云. 機是關義. 何者. 衆生有善有惡. 關聖慈悲. 故機是關義也. 三者機是宜義. 如欲拔無明之苦. 正宜於悲. 欲與法性之樂. 正宜於慈. 故機是宜義也. 次明應者. 亦爲三義. 一者應是赴義. 既言機有可生之理. 機微將動聖人赴之. 其善得生. 故用赴而釋應. 二者應是對義. 如人交關. 更相主對. 若一欲賣一不欲買. 則不相主對. 若賣買兩和. 則貿易交決貴賤無悔. 今以衆生譬買. 如來譬賣. 就機以論關. 就應以論對. 故以對釋應也. 三者應是應義. 既言機是於宜. 宜何等法應以慈悲之法. 是善惡所宜. 悲則宜救苦. 慈則宜與樂."

36) 상동, 747a-749b. 감응과 사실단의 관계가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장문이라 인용 생략. 藤井教公의 「天台智□에 있어서 四悉檀의 意義」(일본:『인도학불교학연구』 47-2호, 印度學佛敎學研究, 평성11), pp. 33-34 참조.

37) 상동, 689b. "若人厭文不好言語. 爲悅是人故聖□然. 如律中. 爲福他故受供. 聖則□然. ...結跏正念身心不動. 令無量人得悟道跡. 是故□然皆是四悉檀. 起此□然利益一切." 이 인용문에서도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닦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태의 사실단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논리에 의거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互具互融의 圓融論이며, 둘째는 사구 논리이다. 물론 두 가지 논리 형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먼저 互具互融論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천태의 사상적 특징인 삼제원융론은 너무나 유명하다. 천태는 각각 하나의 실단을 분별하면 나머지 세 실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실단은 피차 사실단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실단은 오음, 12입, 18계의 隔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실단이다.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인실단이다. 올바른 세계로 샅된 세계를 깨뜨리는데 이것이 대치실단이다. 만일 바른 세계를 듣고 도에 悟入하면 이것이 제일의실단이라 말한다.³⁸⁾ 이것은 관정의 私見에 나오는 것이지만 나머지 실단에 관한 설명도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³⁹⁾ 그러나 관정의 사건을 빌리지 않더라도 호구호용의 논리를 천태의 해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단의 十重 해석 중에서 開顯을 설명하면서 “모든 방편의 실단을 결정하면서 동일하게 미묘한 제일의를 성취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방편을 결정해 妙에 들어가는데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다. 제일의가 세 가지 실단과 떨어져

38) 상동, 687b. “一悉檀通有四悉檀。論云。陰入界隔別是世界。因緣和合故有人是爲人。正世界破邪世界是對治。聞正世界得悟入是第一義。爲人有四者。雜業因緣得雜觸雜受是世界。於一事中。或聽是爲人。或不聽是對治。無人得觸無人得受是第一義。對治中有四者。佛三種法治人心病。藥病異故是世界。治人是爲人。對病是對治。實性則無是第一義。第一義中四者。一切實乃至四句是世界。佛支佛心中所得法。豈非理善是爲人。一切語論一切見一切著皆可破。一切不能通第一義。能通是對治。言語道斷法如涅槃是第一義。”

39) 상동, 687bc.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실단이 제일의 실단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一과 三이 자유자재하니 지금은 한 가지의 해석을 할 뿐이다.”라고 대답한다. 이어서 “만일 모든 방편의 세계실단을 결정하여 妙의 세계실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바로 釋名妙에 대처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9법계 십여시의 性相의 이름이 동일하게 佛法界 性相의 이름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한다.⁴⁰⁾

또한 修觀을 설명할 때 三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가 있다. 이것은 순서에 입각해 空觀, 假觀, 中道觀을 닦는 것에 대해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단에 의거해 전개되고 있으며, 一心 三觀 역시 사실단을 떠나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천태사상의 핵심인 卽空卽假卽中的 실상관념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삼제의 원융이란 점에서 일심삼관의 원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三觀이 공관에서 가관으로, 가관에서 중도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次第三觀이라 부르며, 관찰되는 대상을 隔歷三諦라고 말한다. 여기서 일심삼관이란 이러한 삼관을 一心의 三面에서 동시에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三觀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법화삼매에 들어갈 때 생기는 고차원의 미묘한 지혜이며, 諸法이 본래 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諸法의 세간을 벗어나 실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⁴¹⁾ 四教나 五味(時) 역시 사실단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40) 상동, 690b. "問曰。決諸權悉檀同成妙第一義爲當爾不。答決權入妙自在無□假令妙第一義不隔於三。三不隔一。一三自在。今且作一種解釋也。若決諸權世界悉檀。爲妙世界悉檀者。卽是對於釋名妙也。亦是九法界十如是性相之名。同成佛法界性相。攝一切名也。"

41) 安藤俊雄, 『天台學』(일본: 平樂寺書店, 1969), p. 118 참조.

된다는 점에서 역시 互具互融의 논리적 기반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教觀 역시 상호 보완과 融攝의 관계 속에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천태는 『마하지관』에서 教에 밝은 사람을 信行人이라 부르고, 觀에 집중하는 사람을 法行人이라 지칭한다. 신행인이나 법행인은 각각 성불의 종자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면 각각 聞思修하여 開悟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행인은 聞慧가 예리하고 修慧에는 둔하며, 법행인은 修慧는 예리하지만 聞慧는 둔하다고 말한다. 상보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⁴²⁾ 모두 상호보완과 상호 융섭, 즉 호구호용의 논리적 기반 위에서 있다는 것을 말한다.

천태의 互具互融의 논리는 그의 사상적 특징이자 그가 중국 사람임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호 포섭과 융합의 논리는 중국 전통철학에 이미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³⁾ 천태 뿐만 아니라 光宅法雲도 『법화경』을 해석할 때 상호 포섭과 융합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⁴⁴⁾ 적어도 互具互融의 논리가 중국불교사상가들에게는 익숙한 論法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一卽多 多卽一의 사상이나 心佛及衆生 無差別의 사상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천태가 사실단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四句論理가 있다. 물론 이 논리 역시 천태의 저서 대다수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논리형식이다. 여기서는 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

42) 關口眞大, 전제논문, p. 310 참조.

43) 차차석, 「천태 성악설의 윤리성 탐구」(한국: 『한국불교학』 제52집, 2008), pp. 21-22 참조.

44) 상동, 674c. "衆生起善不出三業十善, 十善有二, 一者止善二者行善, 今且就止善作論. 此十善修習之法皆互相顯助, 何者故, 如持不殺戒爲首次修餘九善助成, 乃至持正見作頭餘九助成, 如是更互相助仍成百善."

펴보기로 한다. 『법화현의』 권1에서 사실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용된 사구논리는 다양하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隨—隨樂欲, 隨便宜, 隨對治, 隨第一義

열반 四諦—生滅사제, 無生사제, 無量사제, 無作사제

四教—장교, 통교, 별교, 원교

四不可說—生生不可說, 生不生不可說, 不生生不可說, 不生不生不可說

사실단—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제일의실단

중론 사구계—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名爲假名 亦是中道義

用不用의 사구—不得不用, 得而不用, 不得而用, 亦得亦用

이상에 열거된 것 이외에 앞서 起教에서 소개한 것처럼 각각의 실단에 사구논리를 적용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천태가 사용하고 있는 四句 논리는 삼론종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구분별의 논리형식과 궤적을 달리하고 있다. 삼론종에서는 중도를 밝히기 위해 긍정, 부정, 동시긍정, 동시부정이란 변증법적 논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천태는 근기와 그에 상응하는 부처의 대응방식을 네 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이들이 상호간에 포섭과 융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변증적인 논리 전개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사구분별이란 논리를 활용해 중도실상의 세계를 밝히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삼론사상가들 중에서 僧朗은 이제합명중도론을 제창했

45) 전개 각주16)으로 표시된 도표를 참조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으며, 길장은 4중이제설을 주창하여 반야사상에 철저한 중도실상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천태는 삼론사상가들이 주로 활용했던 논리형식인 사구논리를 수용하여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한 논리형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변증법적 논리전개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천태의 사상적 계보를 살펴본다면 삼론 내지 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사상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천태가 삼론사상가들과 유사한 사구논리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화현의』 권1에서 사실단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변증법적인 사구논리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마하지관』이나 『차제선문』에서는 그러한 활용의 실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천태는 사구논리를 수용하되 자신의 교학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삼론사상가들이 중시했던 이론적 내지 논리적 추구가 자칫 관념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실천을 중시했던 천태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삼론사상가들 역시 실천적인 선정을 부정하거나 경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론사상에 대한 천태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

46) 차차석, 전계논문, p. 26 참조. 川勝守, 「天台四悉檀義の一側面」(일본: 『奥田慈應 記念 佛教思想論集』, 平樂寺書店, 소화51), pp. 772-775. 여기서 필자는 선을 유루선, 무루선, 역유루역무루선, 비유루비무루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을 사구논리에 의거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천태 사실단의 구조와 사상적 특징에 대해 『법화현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태는 十重으로 사실단을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대지도론』에서 주장하는 사실단의 내용과 달리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교화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천태가 생각하는 사실단의 핵심은 부처와 중생의 관계성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생의 근기와 성품, 欲樂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으며, 그것이 感應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천태는 사실단을 활용해 教觀兼修의 필요성과 圓融性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불교학을 대표하던 남방의 교의학과 북방의 禪學을 융합 내지 통일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넷째 천태는 사실단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互具互融이나 四句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태가 활용하고 있는 사구논리는 매우 주체적이고 자의적이란 점에서 동시대나 혹은 그 이전 시대에 활동한 삼론사상가들의 변증적인 사구분별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열반경』(□大正□□12)
- 광택 범운, 『법화회의』(□大正□□33)
- 천태 지의, 『법화현의』(□大正□□33)
- 『마하지관』(□大正□□46)
- 『차제선문』(□大正□□46)
- 印順, 『中國禪宗史』(중국, 江西人民出版社, 1999)
- 陳英善 『天台緣起實相論』(臺灣, 東初出版社, 民國84)
- 安藤俊雄, 『天台學』(일본, 平樂寺書店, 1969)
- 多田孝正, 『法花玄義』(일본, 大藏出版株, 소화60)
- 關口眞大, 『佛敎의 實踐原理』(일본, 山喜房佛書林, 소화52)
- 平井俊榮, 『法花文句의 成立에 關한 研究』제2편 제4장(일본, 春秋社, 1985)
- 이병욱 『천태사상연구』(서울, 경서원, 2000)
- 小野島護城의 「四悉檀管見」(『傳道新誌』 제14권 제10호, 제15권 1호, 1901, 1902)
- 「지나佛敎思想에 있어서 四悉斷義」(『印度學佛敎學研究』 제10권 제2호, 소화37)
- 川勝守, 「天台四悉檀의 一側面」(奧田慈應先生喜壽記念 『佛敎思想論集』, 平樂寺書店, 1976)
- 川勝守, 「四悉檀義와 敎相論- 天台三大部 에 대해」(關口眞大편 『佛敎의 實踐原理』, 산희방불서림, 1977)
- 十川昭, 「天台에 있어서 四悉檀에 대해」(『大谷大學大學院研究紀要』 제14

호, 1979,12)

藤井教公, 「天台에 있어서 四悉檀의 意義」(『印度學佛敎學研究』제47권제2호, 1999,3)

奥野光賢, 「天台敎學과 『法花論』 - 吉藏과의 比較에서 -」(天台大師千四百年 遠忌記念出版 『天台大師研究』, 天台學會, 1997)

서 성원, 「『대지도론』의 사실단」, 『인도철학』 제11집 제2호(2002, 인도철학회)

차 차석, 「천태 성악설의 윤리성 탐구」(『한국불교학』 제52집, 2008)

최 일범, 「주역선해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가산학보』, 가산불교문화원, 2003)

The Philosophical Features of the Four Siddhānta Explained by Tiantai

—especially in the Propound Meaning on the Lotus Sutra

Cha, Cha-seuk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We can understand the system and the philosophical features of the four siddhānta (四悉檀) explained by Tiantai (天台) in the propound meaning on the Lotus sutra 『法華玄義』 as below.

First, Tiantai explains the four siddhānta using the notion of 十重. This means that Tiantai understood and explained the four siddhānta as the Buddha's teaching metho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notion of four siddhānta in the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

Second, the key-point of four siddhānta understood by Tiantai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ddha and human beings. So, he emphasizes the differences of human beings like their fundamental abilities, personality, and wants, and he understood the four siddhānta as the method to embody compassion in the relation of the divine response .

Third, Tiantai holds the complete combination (圓融) and the need of the unity between the learning of Buddhist doctrines and the meditation practice (教觀兼修) using the idea of the four siddhānta. This shows that Tiantai holds the unity between the learning tradition in the south part of China and the zen tradition in the north part of China at that time.

Fourth, Tiantai applies the logic of 互具互融 and the four terms of differentiation (四句分別), when he analyzes the notion of the four siddhānta.

However, his logic system of the four terms of differentiation shows the different features of the dialectical logic of the Sanlun logicians in Tiantai's former times on the point that the notion of the four terms of differentiation by Tiantai is very independent and subjective.

Key Word

The Four Siddhānta(四悉檀), Three kinds of meditation of Tiantai(三觀),

The Four teachings of Tiantai(四教),

The five periods of the Buddha's teaching(五時), 互具互融,

The four terms of differentiation(四句分別)